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연중 제28주일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감사’할 줄 안 덕분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존중), 상대보다 못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겸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은총이라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체적인 치유를 넘어 진정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의 치유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표징이지 하느님 자체는 아닙니다. 병의 치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깨닫는 것이 치유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자의 믿음과 감사야말로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복음에 나오는 환자들처럼 기적적인 은총을 입는다면 분명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코로나 시국을 생각해 보면 기적적인 은총이 필요 없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도 크게 감사드릴 일입니다. 일상 속의 감사함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잃지 않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겠습니다.



송재훈 라파엘 신부 | 수산본당 주임

###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2열왕 5,14-17
- 화 답 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제 2 독 서 2티모 2,8-13
- 복 음 루카 17,11-19

# 하느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이들에게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몇 해 전 어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신부님, 하느님이 먼저 있었나요? 아니면 하느님을 생각한 인간의 뇌가 먼저 있었나요?” 이 질문은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 이성이 하느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고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하느님이 먼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창조론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을 제외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웬지 인간이 자기 위안을 얻거나 한계를 회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믿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필자 역시 청년 시절, 신의 존재와 죽음, 무죄한 이의 고통과 신의 방관에 대해 많은 시간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의 질문에 공감의 미소와 함께 이런 대답을 했다. “더 많이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느님이 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청년의 질문은 과일 가게에서 생선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인간의 이성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얽매 집착할 때 진정 살아 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이성을 넘어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분의 섭리에 눈을 뜨게 된다. 새로운 차원에서 하느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가령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스승을 배반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깊은 영적 체험이나 사랑의 체험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한다. 하느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분이다.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이성으로 모두 파악할 수 없는 더 크신 분이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루카 4,31-37 참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가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아보고 그분을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멸망시키실 분으로 두려움에 떨었다. 앓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을 통한 구원에 참여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할 때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다. 얼마 전 어느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들려준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린 딸이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그러자 아버지가 답을 했다. “그것은 엄마 아빠가 너무도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가장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너를 낳았단다. 너는 엄마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이 아버지의 답변은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상기시킨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께서 너무도 서로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엄청난 사랑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된다. ‘마주 보는 사랑’은 오직 상대를 위한 사랑의 충만이지만 ‘함께 나누는 사랑’은 모두를 위한 더 큰 사랑의 비움이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를 매일매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체험한 것처럼 “하느님은 사랑”(1요한 4,16)이시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 사랑이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이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마태 25,13 참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너무도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준비는 ‘고요히 머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안다고 고백하는 더러운 영에게도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루카 4,35)라고 말씀하셨다. ‘지식에 의존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떠들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주님 곁에 머물러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탁하여라’는 의미로 들린다. 고요히 겸손하게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묵상하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느님 사랑의 영이 온 누리에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 교구 공소지도자 연수-수도회 순례

교구 공소지도자 연수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수 중 수도회 순례를 하며 느낀 소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 22~23일, 1박 2일의 공소지도자 연수는 교구 내 수도원을 순례하는 일정이었다. 바로 하루 전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와 육신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너무도 편안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그리스도의 성혈흡승 수녀회이다. 수도복도 없는 수녀님들의 단순한 삶과 봉사 사도직은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수녀님들의 봉헌생활의 정점인 인상을 깊게 받았다. 티 나지 않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결코 쉽지 않을 길이라.

두 번째 방문지는 수정의 성모트라피스트회였다. 보다 엄격한 엄음 시토회란 이름답게 수도자들의 일상은 너무도 엄격하고 매일 7번씩 바쳐지는 성무일도의 삶은 그분들의 영적인 양식의 원천이 아닐까 싶다.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청빈, 순명, 정결의 서원에 더하여 정주서원(定住誓願)까지 한다고 한다. 결국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까지도 보지 않고 포기하는 희생과 노동으로 자급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세 번째 방문지는 고성 올리베타노 남자 대수도원이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일생을 기도와 노동에 매진하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 류덕현 아바스께서 직접 커피와 차를 준비하셔서 대접하는 모습에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대수도원 성당에 밝은 분위기에서 봉헌했던 미사는 깊은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되었다.

마지막 방문지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봉쇄된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수녀님들의 모습은 너무도 해맑은 소녀들 같았다. 수녀님들은 특히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교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미사와 기도에서 나온다는 말 같았다.

연수를 끝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 이제까지 “일하고 일하라”라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세상 먹고사는 일에만 빠져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앞으로 영혼의 양식인 기도하는 일도 챙겨보리라 다짐해 본다. 우선 매일의 아침·저녁기도부터 다시 해 봐야지.

정용우 토마스(함양본당 문정공소 회장)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된 공소지도자 연수 중, 방문한 고성 가르멜 여자 봉쇄수도원에서 느낀 소감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세상 물질문명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 저로서는 수도원의 내부와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수녀님들의 생활상은 주위들은 지식과 영화 속에서나 보았을 뿐 너무나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봉쇄수도원이란 곳은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 일평생을 세상과 단절한 채 감옥과도 같은 그 울타리 속에서만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많은 세월 동안의 고독과 고통들을 어떻게 인내하며 살고 있는지 짧은 저의 소견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계신 수녀님들은 인고의 세월을 견디시느라 삶에 지친 모습을 상상하였는데 그분들의 면면을 철창 너머로 대면한 순간, 저의 상상이 완전히 무너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벽찬 전율을 느끼며 저의 두 눈엔 감동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수많은 인고의 세월과 그 고통마저 주님께 오롯이 바친 수녀님들의 잔잔한 미소 속에 번지는 천진 무구함과 평화로움이란 성모님과 천사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더욱이 수녀님들께서 마련한 선물을 들고 수도원을 나설 때, 부끄러움이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외진 곳에서 기도와 고행으로 살아가시는 수녀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하옵고 이번 공소지도자 연수를 통하여 받은 은총을 평생토록 간직하여 더욱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주환 야고보(진교본당 북천공소 회장)





# 공손과 배려가 마중물이 되어 작지만 옹골찬 경화동성당

조정자 이사벨라

## 첫눈에 반하다

성당 마당에 들어서자 본당 회장이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참 바르고 상냥하다.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이야기보다 느낌에 끌리도록 하는, 이것이 경화동성당의 이미지다.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잠시 후 본당 신자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다.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닳고 쓸긴 것조차 신앙으로 응축해낸 그것이 경화동 신자들의 바탕이다.

## 큰 울림을 남기고 간 사제

모든 열정이 반드시 진리를 향한다고 볼 수 없고 모든 노력이 반드시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나왔다는 것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경화동을 아픔으로 물들인 한 사건이 있었다. 사제서품을 받고 첫 부임지로 온 김해동 사제를 불과 2년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1974년 10월이었으니까 1968년 새 성전을 짓고 6년 만에 터진 일이었다.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에 빠진 신자들은 기운을 차려 소복을 입고 국화꽃으로 운구를 단장해 젊은 사제를 차분하게 보내드렸다. 그 그리움과 비통함이 은연중에 깊은 침묵으로 이어져 반성과 회한으로 공동체에 신앙의 잔뿌리를 내렸다.



## 신앙의 못자리

새 성전을 짓고 첫 혼배미사를 올렸다는 송숙자 아가다 자매는 아직도 레지오 단장을 하고 있다. 여성부장과 함께 각 단체장을 두루 섭렵하였고 레지오 단장만 25년을 훌쩍 넘겼으니 경화동성당의 나이테나 다름없다. 현 사무장인 임소숙 마리안나는 부모님도 이곳에서 혼배성사를 올리고 언니와 가족이 그 뒤를 줄줄이 잇는다면 할머니도 세례를 받고 할아버지의 장례식도 여기서 치렀다. 김춘덕 스콜라스티카는 교적을 옮긴 지 4년 만에 본당 사목회장을 맡았다. 이런 막대한 임무가 어찌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으랴만, 그만큼 응답에 충실하였고 낯선 이에 대한 기존 신자들의 배려와 상호 간의 노력이 이런 파격을 이뤄냈다. 한창 활기찬 시기에 덕산동성당 부지를 마련해 놓고 신자의 절반을 떠나보냈다. 그때는 사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마저도 홀러딩 비더라고 하였다. 1930년 진해공소로 시작해 근 90년에 이르기까지 그 풍파와 애환을 어찌 다 설명하랴만 이별과 혼란을 견디며 신앙의 동력을 키웠다.

### 시대를 끼안는 작지만 응골찬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우선 먹고살기에도 급급한 시기에 1968년 유치원을 설립해 백년대계의 기초를 다지고, 새마을금고를 만들어 상이용사 자활을 도왔다. 화해와 쇄신 봉사자를 양성해 김해, 함양, 거창, 부산 초량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다. 1984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행사에 250명, 1989년 세계성체대회 250명, 꾸리아 성지순례 150명, 2019년 김수환 추기경 생가 성지순례에 263명이 참여했다. 이렇듯 목표가 주어지면 전 신자가 파도처럼 일어나 진해지구 체육대회 때는 우승을 싹쓸이했다. 이것을 박유성 아우구스티노는 경화동성당 40년사를 편찬하면서 세세하게 기록했다. 홍부희, 차광호, 박호철, 문수민 신부가 본당 출신이고 11명의 수녀가 탄생했다.

### 감동이 깃든 공동체

경화동성당은 시대와 상황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사제를 만나왔다. 그리고 지난해 부임한 윤행도 가롤로 주임 신부는 신자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 중이다. 부임하던 날 “성당 지으려 오셨지요?”라는 뜻하지 않은 신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 이 성당에서 20년은 거뜰하게 버틴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기 위해서 만났다. 만나야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로막았다. 미사는 허용하되 인원수를 제한하는 데 착안, 미사 횟수를 늘렸다. 막히면 굶어서 흐르는 물처럼 평일에는 두 대, 주일미사는 다섯 대에서 여섯 대까지 한 적도 있다. 그리고 침묵을 권고했다. 침묵은 자신의 바닥까지 헤집고 내려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천혜의 수단이다. 목적은 신자 개개인의 승화이다. 하느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품위 있게 살아내자는 것이다. 그래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1박 2일 피정을 15명씩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신자들은 좋은 호응을 보였다. 특히 초상이 나면, 그 마지막 가는 길도 끝까지 지켰다. 입관식은 물론이고 장지까지 따라가 고인을 추모했다.

### 어떤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

60년 전에는 이 장소에 이 규모가 최적이었으나 반세기를 넘기면서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주유소가 생겼고 정문을 나서면 6차선 도로에 차들이 획획 달린다. 처음 설립할 때의 의미는 바래지고 좁은 마당에 낡은 건물이 보수와 땀질로 기도생활에 방해받고 있다. 그래도 우리 세대에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으나 후손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한 세대는 희생해야 한다는 게 지금 신자들의 생각이다. “진정한 성전은 내 마음 안의 성전이다.”라고 했던 윤행도 신부도 팔을 걷어 붙였다. 첫눈에 반하게 하였던 그 이미지로 뼈대를 갖춘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면서 곧 사라질지도 모를 소담한 성전을 눈에 담았다.



**교구장 서리 동정**

**추계주교회의**

일시: 10월 10일(월)~14일(금)  
 일시: CBCK

**교리교사의 날 미사**

일시: 10월 16일(주일) 16:00  
 일시: 성지여고 체육관

**교구/본당**

**성경교육 봉사자 월례회**

일시: 10월 11일(화) 14:00  
 장소: 교구청

**소공동체장 연수-창원지구**

일시: 10월 13일(목) 13:00  
 장소: 사파동성당

**제35회 교리교사의 날**

일시: 10월 16일(주일) 09:30  
 장소: 성지여고 체육관

**청년성서 '에파타' 10월 일정 안내**

일시: 10월 14일(금) 20:00  
 내용: 성경강의-판판기1  
 일시: 10월 21일(금) 20:00  
 내용: 폐제기도와 미사  
 장소: 교구청 지하 경당

**위원회/기관/단체**

**파티마성모발현 105주년 기념미사**

(세계평화·최인들의 회개·평화통일을 위하여)  
 일시: 10월 13일(목) 14:00

장소: 부산가톨릭대학 신학대학교 대성전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10월 기도모임 (묵주기도성월 100단 묵주기도 봉헌)**

일시: 10월 17일(월) 09:00~17:00  
 장소: 사파동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점심식사 무료 제공)  
 문의: 회장 010·9399·5454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5  
 일시: 10월 17일(월)~20일(목) 13:30~17:30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파티마 홀(구 5층 강당)  
 교육비: 4만 원(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  
 문의: 055·270·1648/ 1650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정신보건전문사)  
 답사 자격 보유)

문의: 010·3551·2038

**故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3주기 추모미사**

일시: 10월 19일(수)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주례: 서정범(요한) 신부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WYD)**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로마에서 시작된 세계청년대회(WYD)는 전세계 150개국 이상의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세계청년대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의 신앙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 2023년 7월 22일(토)~8월 9일(수) 18박 19일  
 순례(스페인 일대), 교구대회(포르투갈 일대), 본대회(포르투갈 리스본)  
 지원자격: 1988~2004년생, 6차의 사건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 20명 선발  
 예상참가비: 450~500만 원(최대 100만 원 교구 보조)  
 신청: 교구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youth.cathms.kr), 10월 9일(주일)까지  
 선발일정: 10월 15일(토) 14:00 교구청-설명회 및 면담  
 10월 24일(월)-참가자 확정 개별 통보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2023 WYD 공식 홈페이지: www.lisboa2023.org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10월 10일(월) 19:00	중앙동성당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지켜야 할 우리의 믿음	장훈철 바오로 신부(부산교구)		010·5072·5612
청 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월 15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p><b>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b>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p>	<p><b>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b></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b>마산 예경요양병원</b>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b>예경병원</b>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p><b>신세계 피부비뇨기과</b></p> <p>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p> <p>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p> <p>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p>	<p><b>●제주성지순례 3박 4일 항공, 숙박, 버스 포함 1인 28만 원</b></p> <p><b>marcus-1.com(마르코성지순례) 010.5150.2625</b></p> <p><b>트라피스트 수녀원</b>                  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무화과잼, 꿀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p>
---	--	---	--

# 줄탁동시 啾啄同時

하진형 다니엘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줄탁동시啾啄同時는 참으로 아름답고 깊은 말이다.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때를 맞추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는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순조롭게 탄생된다. 이처럼 무엇이든 제대로 이루어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을 모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데 식물도 줄탁동시를 한다. 제대로 된 단감을 수확하기 위하여 거름도 주고 감나무 꽃도 속아내기도 하지만 나무 스스로도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에 감이 많이 열리면 크기를 줄인다. 참으로 기특하고 신비롭다. 그러다가 사람이 받침대를 받쳐주면 큰 감으로 키운다 한다. 사람과 식물의 줄탁동시다. 그런가 하면 호박넝쿨도 제초작업을 하면서 다치지 않게 한곳으로 치워 놓으면 어느 순간 작은 알맹이를 떨구고는 더욱 큰 호박을 잉태하여 키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식물의 줄탁동시를 보면서 그것이 동물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나는 얼마나 무지했던가?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세상천지가 매 순간 줄탁동시를 하며 흘러가고 있다. 동물과 식물은 물론 무생물과도 한다. 아무리 거대하고 튼튼한 성곽일지라도 큰 바윗덩어리로만 지어진 것은 없다. 틸틈이 작은 돌이 받쳐 주어야 튼튼하고 오래간다. 그것은 자연의 줄탁동시이고 이치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자연에 기대어 커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섭리에 순응한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 생로병사生老病死와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이 다 있는 것을 사람들만 모른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줄탁동시다. 사회적 동물인 까닭에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지만 그야말로 ‘턱도 없는’ 일이다. 서로 밀고 당겨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쁘게 피어난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이웃들과 나누며 같이 하고 싶다.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있으려니 맑고 청아하여 신비스럽기까지 한 새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간다. 새소리에 색깔이 있다면 가을을 기다리는 노란 구절초의 색깔일 수도 있고 봄을 기다리는 보라색 제비꽃을 닮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순간도 곳곳에서 소리 없는 줄탁동시가 천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어머니의 새벽녘 기도에 하늘이 응답해 오는 것도 줄탁동시이고, 봄에 흘린 땀이 가을에 열매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며, 걸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측은지심도 그렇다. 오늘도 줄탁동시를 생각하면서 호박구멍이를 판다. 널찍하고 깊게 파서 소금기 없는 음식쓰레기며 상한 과일 등을 묻고 흙으로 덮어준다. 그리고 내년 봄에 호박씨를 뿌릴 것이다.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고개를 넘는데 그 고비마다 나도 모르는 이웃들의 도움이 얼마나 많았고, 나는 또 그 많은 고마움을 무지無知하게 지나쳤을까.



교구 가톨릭문인 3인3색 신앙수필집

## 더 가까이 오라는

신학교를 못자리라 부른다. 못자리에서 자란 벼가 낱알을 우리에게 제공하듯, 신학교에서 자란 학생들이 사제로 본당으로 나아간다. 3인3색수필집도 그렇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글로 자라 수필집이 된다. 사제가 본당이라는 자리에서 신자들과 소통하듯, 3인3색수필집도 독자들과 글을 통해 소통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체험하듯 이 글들 하나하나가 더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한다.

- 지은이: 홍연수, 고광주, 황광지
- 출판: 불휘미디어

—교구 홍보국장 이상록 신부—



# 남부와 북부 지역의 점령(여호수아 9-12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예리코와 아이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은 가나안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기브온족의 반응부터 들려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예리코에서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살던 그들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신을 신고, 해진 옷을 입은 채 낡은 자루와 마른 빵, 갈라져서 껌맨 포도주 부대를 들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느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고장에서 왔으니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공동체의 수장들은 주님의 뜻을 여쭙어보지도 않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상황은 신명 20,10-15의 전쟁에 관한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을 칠 때는 먼저 화친을 제안하고, 화친을 받아들이면, 그 성읍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노역자로 삼습니다. 기브온족이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들의 속임수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히위족으로 기브온과 크피라, 브에롯과 키르얏 여아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한 맹세 때문에 그들을 살려 두기로 결정하였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전을 위해 나무 패는 자와 물 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의 유래에 관한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족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들은 아모리족 다섯 임금의 반응에 대해 서술합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야르뭇과 라키스, 에글론의 임금들은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족의 긴급한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야간 행군을 하여 이 동맹군을 급습합니다. 하느님께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시니 적군은 후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후퇴하는 길에는 유례없는 우박이 내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어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현상은 개기일식으로 갑자기 날이 어두워진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기에 적군들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동맹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그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여호 10,14)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초르 임금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임금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메롬 물가로 진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 11,15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모든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습니다(여호 11,23).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을 요약하는 보고서입니다. 1-6절에서는 요르단 동편 땅에서의 승리를, 7-8절은 여호수아의 승리를 요약하며, 9-24절에서는 정복한 도시와 임금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시며, 하느님께 대한 순종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힘으로 어떤 원수도 굴복시킬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